

임준섭, KIA 불펜에 희망을 던지다



12일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2013 프로야구 시범경기 KIA와 SK의 경기에서 KIA의 선발투수 임준섭이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현·김주찬·김원섭 나란히 2타점 시범경기 SK 6-1 격파 ... 3연승 휘파람



좌완 투수들이 KIA 마운드에 희망을 던지고 있다. KIA 타이거즈가 12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시범경기 3차전에서 투·타의 고른 활약 속에 6-1로 승리를 거뒀다. 시범경기 3연승이다.

선발로 투입된 신예 좌완 임준섭의 주가가 급상승했다. 임준섭은 입단후 처음으로 팬들에게 선을 보인 자리에서 4이닝 3피안타 무사구 2탈삼진 1실점의 피칭을 하며 합격점을 받았다.

1회 첫 상대였던 이명기를 볼넷으로 내보냈지만 도루 실패로 원아웃, 최윤석을 유격수앞 땅볼로 처리한 뒤 임준섭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패조의 스타트를 끊었다. 2회에도 탈삼진 하나를 추가하는 등 삼자범퇴로 막은 임준섭은 3회 위기관리 능력도 보여줬다.

선두타자 박진만의 중전안타에 이어 노련한 조인성에게 3루수 옆을 빠지는 2루타를 허용하며 무사 2·3루, 박승욱의 유격수앞 땅볼로 점수를 내주기는 했지만 이명기와 최윤석을 각각 2루수앞 땅볼과 투수앞 땅볼로 잡아내며 추가 실점없이 이닝을 마무리했다. 4회도 깔끔하게 삼자범퇴로 끝내며 첫 등판을 성공적으로 끝냈다.

좌완 투수들이 KIA 마운드에 희망을 던지고 있다. KIA 타이거즈가 12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시범경기 3차전에서 투·타의 고른 활약 속에 6-1로 승리를 거뒀다. 시범경기 3연승이다.

선발로 투입된 신예 좌완 임준섭의 주가가 급상승했다. 임준섭은 입단후 처음으로 팬들에게 선을 보인 자리에서 4이닝 3피안타 무사구 2탈삼진 1실점의 피칭을 하며 합격점을 받았다.

1회 첫 상대였던 이명기를 볼넷으로 내보냈지만 도루 실패로 원아웃, 최윤석을 유격수앞 땅볼로 처리한 뒤 임준섭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패조의 스타트를 끊었다. 2회에도 탈삼진 하나를 추가하는 등 삼자범퇴로 막은 임준섭은 3회 위기관리 능력도 보여줬다.

선두타자 박진만의 중전안타에 이어 노련한 조인성에게 3루수 옆을 빠지는 2루타를 허용하며 무사 2·3루, 박승욱의 유격수앞 땅볼로 점수를 내주기는 했지만 이명기와 최윤석을 각각 2루수앞 땅볼과 투수앞 땅볼로 잡아내며 추가 실점없이 이닝을 마무리했다. 4회도 깔끔하게 삼자범퇴로 끝내며 첫 등판을 성공적으로 끝냈다.

임준섭은 팬들에게 낯선 이름이지만 스프링캠프에서부터 선동열 감독의 주목을 받아 온 선수다. 지난해 입단과 함께 팔꿈치 수술을 받았던 임준섭은 재활과정을 거쳐느라 공을 던지지 못했지만 변화무쌍한 공과 배짱으로 스프링캠프에 합류하며 마운드 복귀전을 치렀다.

임준섭의 주무기는 남다른 직구. 스피드가 아닌 볼끝이 매력적이다. 12일 50개의 투구수를 기록한 임준섭은 44개의 직구, 체인지업과 커브는 각각 3개를 던졌다. 직구 위주의 피칭을 했지만 변화구 승부를 한 것처럼 보였다. 직구 그림으로 던지는 임준섭의 공이 커터같이 움직이면서 우타자 몸쪽을 파고들었다. 직구 최고 스피드가 142km에 그쳤지만 SK 타자들이 쉽게 공략을 하지 못한 이유다.

무엇보다 승부사 기질이 임준섭의 가장 큰 장점이다. 임준섭은 "1회 조금 긴장되기는 했지만 2회부터는 내 공을 던질 수 있었다. 마운드에 오르는 게 재미있다. 재활을 하느라 경기 감각이 떨어졌었는데 경기를 하면서 스피드도 오르고 감각도 좋아지고 있다. 올 시즌 1군에서 최대한 많은 이닝을 소화하는 게 목표다"고 말했다.

일찍이 선발로 올 시즌을 준비한 좌완 양현종이 9일 5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기분 좋게 명예회복을 위한 첫 걸음을 떴고, 좌완 불펜의 기대주



'해결사' 김상현(왼쪽)과 '수호신' 앤서니. KIA가 12일 열린 SK와의 시범경기에서 4회말 터진 김상현의 역전 결승타와 9회 무사 만루의 위기에 등판해 실점없이 경기를 끝낸 마무리 앤서니의 활약속에 6-1 승리를 거뒀다. <KIA 타이거즈 제공>

진해수·박경태의 시범경기에서의 움직임도 괜찮다. 팔꿈치 수술을 받은 심동섭의 재활도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KIA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꼽히던 좌완 투수 거품에 단비가 내리고 있다.



'해결사' 김상현(왼쪽)과 '수호신' 앤서니. KIA가 12일 열린 SK와의 시범경기에서 4회말 터진 김상현의 역전 결승타와 9회 무사 만루의 위기에 등판해 실점없이 경기를 끝낸 마무리 앤서니의 활약속에 6-1 승리를 거뒀다. <KIA 타이거즈 제공>

한편 KIA는 0-1로 뒤진 4회 터진 김상현의 2타점 적시타로 승부를 뒤집은 뒤 끝까지 리드를 지키며 6-1로 3연승을 달렸다. 처음으로 시범경기에서 모습을 보인 토타자 이용규는 안타 없이 2개의

SK 전력분석팀 "KIA 타선 쉬어갈 곳이 없네"

시범경기 말말말

▲하나 가져가라고 하시더라고= 선동열 감독, 스승 호시노 라쿠텐 감독과 일본 스프링캠프에서 만난 얘기를 하면서, 선발전만 10명이라고 마운드 자량을 하시던 스승에게 불펜이 고민이라고 하자 선수 하나 데려가고 생색을 내시더라며, ▲편의점 가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던데=선동열 감독, 중국 징흥에서 캠프를 치렀던 한대화 2군 총괄코치의 얘기를 하면서, 캠프지가 외진 곳에 있어서 안에 갇혀 지냈다고 하더라며, ▲5년차 막내예요= 내야수 안치홍, 올 시즌에도 야수 막내를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야수진 중에 대졸 신인 고영우와 박찬이 시범경기를 뛰고 있지만 고졸 출신인 안치홍과 90년생

동갑내기다. ▲쉬어갈 곳이 없는데요=KIA 라인업을 본 SK 전력분석팀. 12일 토타자 이용규가 시범경기에 첫선을 보이면서 KIA는 12일 이용규-김주찬-이범호-나지완-최희섭-안치홍-김상현-김상훈-김선빈으로 이어지는 베스트 라인업을 제출했다. ▲오늘 뭐가 해보려고?=김평호 코치가 취재진에 둘러싸인 김상현을 향해, 앞선 두 경기에서 부진해 할말이 없을 건데 취재진의 관심을 받고 있다며, 김상현은 12일 1-2로 뒤진 4회말 역전 2루타로 결승타의 주인공이 되며 모처럼 제 역할을 했다. ▲호수비였습니다=10일 한화와의 경기에서 배로 넘어지면서 공을 잡았던 나지완, 배는 관습하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타이거즈 무등야구장 시즌티켓 판매

정상가의 9.4~30% 할인 K7 타자석 2인 350만원

KIA타이거즈가 2013시즌 무등야구장 시즌티켓을 판매한다. 시즌 티켓은 정규시즌 홈경기 64경기 중 60경기를 기준으로 한 타자석과 지정석으로 오는 18일까지 판매가 이뤄진다.

타자석은 2석 단위로 판매되며 중앙 타자석과 1루 그리고 외야 타자석으로 나뉘었다. 지정석은 중앙을 비롯한 1·3루 내야 지정석으로 1인 구입이 가능하다. 정상가 대비 9.4~30%의 할인이 적용된다. 타자석(2인 기준)

중 K7석은 350만원(정상가 408만원), K5석은 300만원(340만원), 1루 타자석인 쏘울석은 250만원(276만원), 외야 타자석인 포드석은 150만원(210만원)이다. 중앙 지정석은 60만원(80만원)이고, 1·3루 내야 지정석은 35만원(50만원)에 각각 판매한다. 시즌티켓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경기결과 문자 전송 서비스와 포스트시즌 티켓 예매 우선권이 주어진다. 판매는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와 콜센터(1588-7890)를 통해 이뤄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타이거즈 유니폼에 '금호타이어' 새겼다



스폰서십 조인식

KIA타이거즈와 금호타이어가 12일 무등경기장 구단 사무실에서 유니폼 스폰서십 조인식을 가졌다. 조인식에는 KIA 김조호 단장, 선동열 감독, 김상훈 주장과 금호타이어 신용식 전무 등이 참석해 협약서 서명

과 기법 및 패네티 전달을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KIA는 올 시즌 유니폼 원할 상단에 금호타이어 로고를 부착한다. 또 전광판, 입장권, 팬북, 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호타이어 광고 등을 게재하는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출발 왕복 셔틀 운행 안내

광주 - 완도 - 제주항 - 완도 - 광주

셔틀버스출발 : 06:00 광천 터미널 내
셔틀버스도착 : 완도 버스터미널까지만 운행 됨
패 속 선 : 완도 출발 09:00~10:40
제주 출발 17:50~19:30
소 요 시 간 : 1시간 40분
패속선+셔틀버스요금
편도 37,000원(한만세포함요금, 추가요금 없음)
체크 : 단체는 문의 후 확정, 일-제, 제-완 편도는 문의바람

광주 - 목포 - 제주항 - 목포 - 광주

셔틀버스출발 : 06:40분 광천동 터미널 건너편 e-편한세상 앞
셔틀버스도착 : 목포 국제항 여객선 터미널 앞
패 속 선 : 목포 출발 09:00~13:20
제주 출발 17:00~21:20
소 요 시 간 : 4시간 20분
크루즈+셔틀버스요금
편도 30,000원(한만세포함요금, 추가요금 없음)
체크 : 단체 불가, 합인용 및 합인 대상자들 문의바람

첫날부터 짝~찬 신나는 제주 여행
광주 출도착 제주도 2박 3일 매일 출발

완도 쾌속선 169,000원~
목포 크루즈 155,000원~

- 1일자 : 도두봉 트래킹, 수목원테마파크-트리아트, 얼음박물관, 5D영상관
- 2일자 : 오설록, 코끼리랜드, 카멜리아힐 동백정원, 석부자테마파크, 올레7코스, 새연교+새섬, 쇠소깍
- 3일자 : 교래리 삼나무숲길, 조랑말 승마체험, 제주 허브동산, 에코랜드 또는 선녀와 나무꾼, 해녀촌, 친환경농수산물매장

포함 사항:광주-완도, 목포 왕복셔틀버스(신착신)왕복선박료,TAXI 일정내에 모든 관광지 식사(완도-중식3회조식2회/목포-중식2회조식2회) 숙박(일박호텔 5~6인실)
불포함사항:기타드림(1인 10,000원)자유식당(완도)터미널-완도항 수송
현지 직불관광: 산방산 유람선(17,500원)공룡리안마(15,000원) 추가비용:금요일출발 2만원 토요일출발 1만원 2인실이용시 3만원